Hansu LEE \_Interview by Ju Hyun CHO인터뷰\_이한수 & 조주현 조주현: 먼저, 독일에서 귀국한 후 첫 개인전으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전의 전시들과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부분 중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 쓴 점은?이한수: 이번 '무아 몬스터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갖는 2번째 개인전이고, 2001년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선보인 '천왕성에서 온 일기예보'전이 첫번째 개인전이었다. 첫 번째 개인전은 미래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관심과 비판, 그에 대한 우리나라 정체성과의 혼합과 같은 미래혼성문화라는 대명제 속에 다소 포괄적인 성격을 지녔었다면. 이번 전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했다. 정체성의 문제, 고유적인 것과 현대성의 결합, 그리고 글로벌시대의 문화적특성, 이종교배 등의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조주현: 87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전형적인 386세대, 다시 말해 아날로그 문명권의 수혜자로 현재 디지털 하이테크적인 작업을 하게 되기까지 작업 성격상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작업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는가.이한수: 전형적인 386세대로서 사실 힘든 시기였다. 대학 시절 1, 2학년 때는 수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거의 데모하다가 1, 2학년을 다 보냈던 것 같다. 88년도 군대에 가지 전까지 사실 컴퓨터를 거의 이용 안 했고 92년에 제대하니까 286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 그 당시 최첨단 이었던 286 PC를 하나 구입했다. 그 때부터 작업에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다.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사실 내 작업은 독일유학 생활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인 작업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유학에서 거의 다 배웠다. 한국의 80년대 혼미했던 상황에서 예술인으로서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른바 '회색적 리얼리즘'적인 작업을 했었다. 그런 문제들을 안고 무작정 독일로 갔는데 그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시각이 트이고 경험하지 못한 문화들을 받아들여 시야가 큰 폭으로 넓어졌다. 예술을 보는 가치관도 정립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진정한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유럽은 토론식 도제 교육인데 코드 맞추는 기간만 5-6년 걸리고 그 이후 작업 방식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 특별히 존 아름네더 (John Armleder) 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는 전형적인 형식미학을 가진 미니멀리즘 계열 작가다. 그 분과 개념은 달랐어도 모티브를 끌어내고 작업화 시키는 방법을 배웠다.조주현: 특별히 테크놀로지를 소재로 택한 이유는 소위 하이테크적인 Fetish에서 연유한 것인가.이한수: 꼭 그렇지는 않다. 어린 시절부터 만드는 것을 즐기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때 꿈은 화가였지만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과학자를 꿈 꿨었다. 하지만 현재 내 작업에 하이테크적인 Fetish는 없다. 내용위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술의 유희는 절대 예술이 될 수 없다. 기술적인 문제로 예술의 문제가 판단되지 않길 바란다. 사실상 내 작업을 디지털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많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50%씩 이용한다. 조주현: 그렇다면, 주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소재적 측면에서도 전통과 첨단의 포괄적인 접근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나.이한수: 그렇다. 내 작업의 해법이 바로 그 혼합적인 접근법이다. 작업을 보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다. 기술적으로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전통, 현대 그 어느 한쪽에 심하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게 내 작업의 장점이자 단점이면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주현: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적 혼성문화 이미지를 다루게 된 배경은?이한수: 배경이라면 아무래도 독일 유학생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업 시간 중 토론하고 내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아시아인, 한국인으로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약간은 정치적인 면이 있겠지만, 유학 초기에 페인팅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서구 사람들은 나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서양의 형식미학사의 잣대로 내 작업을 평가하며 결국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다.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 정립하면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해야만 했다. 우리 것의 전형성을 발견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보이는 것 이상의 현대적이면서 미래적일 수 있는 작업 컨셉트를 정했다. 바로 우리 것을 직설적 또는 단선적으로 보여주는 구도로 가지 않는 것이다. 변증적 발전을 통한 혼성문화 속에서의 전위를 취하는 것이다.조주현: 전체적으로 작업에서 느껴지는 Sci-fi적이고 키취적인 감성은 SF영화나 일본 만화, 또는 게임장르가 쉽게 연상된다. 특별히 작업에 그러한 장르의 작품들을 직접 도입하기도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작품인지?이한수: sci-fi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볼 정도로. 일본만화도 좋아하고, 게임은 관심이 많지만 중독성 때문에 일부로 즐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게임의 특징이나 형식에 매우 관심이 많아 유심히 관찰한다. 음악 역시 underworld 같은 테크노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즐긴다. 그 두 장르는 사실 매우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많다. 특히 중독성의 측면에서. 테크노 음악의 비트가 반복되는 걸 듣고 있으면 취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 명상 음악도 얼핏 반대인 것 같지만 매개되는 음은 틀려도 비슷한 중독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양쪽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주 듣는다. 영화는 ‘제5원소’나 ‘화성침공’같은 영화를 가장 좋아한다. 그런 영화는 재미있으면서도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위트 있게 보인다. 상상력과 공상적인 판타지가 가미되어 사회를 반영하는 환상적 리얼리즘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내 작업과 비슷하다.조주현: 특별히 어떤 신 (scene)을 작품에 시각화 한 예가 있다면?이한수: 화성침공에서 외계 화성인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투명 우주 헬멧을 쓴다. 내 작업 '21세기 보살'에 투명 헬맷을 씌운 것이 거기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리고 금발의 미녀가 우주선이 내려올 때 풀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UFO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명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영상작업 '옴'의 이미지와 비슷하다.조주현: 혼성의 이미지로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무아 몬스터'는 특히 어떠한 젠더성을 띄거나, 원시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의 이미지도 아닌 매우 중성적인 모습이고, 선악 또는 미추를 판단할 수 없는 이미지이다. 작가로서 '무아 몬스터'의 캐릭터를 정의한다면?이한수: '무아 몬스터'를 하나의 형태적 몬스터 개념으로 쓴 것은 아니다. 무아 몬스터는 하나의 상징적인 아이콘이다. 무아 (無我)는 동양적인 언어, 무아지경 (無我之境)에서. 몬스터는 현재 테크놀로지 시대를 상징하는 괴물로 현 시대를 반영해 줄 수 있는 특이점,문화혼성을 통해 변형되진 괴상한 것과 무아라는 아시아적인 정체성과 연결시킨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변해 갈 미래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만든 것이다. 넓게 봐서 문화적 개념으로 그런 혼성적 특질이 있는 것이면 모두 무아 몬스터가 되는 것이다. 표피적으로만 보여지는 기존의 몬스터가 아닌 혼성적 정신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적인 특수성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몬스터는 현대를 차별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수성과 함께 동시대를 다 아우를 수 는 보편성을 동시에 지녔다고 본다. 그 두개를 섞는 것, 그것이 내 작업의 화두이다. 즉, 무아 몬스터를 기준으로 문화의 잣대를 재 보는 것이다. 조주현: 테크놀로지 괴물성의 등장은 사실 일본의 포켓 몬스터 등의 캐릭터 산업에서 처음으로 재현되었고 전성을 누렸다. 무아 몬스터 캐릭터와 레이저 문양의 키치적 이미지 역시 상당히 귀여운, 그리고 밝고 가벼운 이미지들인데 이런 아시아권 테크놀로지 괴물성의 특징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는가? 이한수: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세계 어린이들이 일본 만화영화를 향유하고 자란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글로벌리즘의 반영이다. 하지만 분명 같은 아시아권 중에서도 일본, 한국, 중국의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징으로 구별된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가볍고 표피적이다. 우리나라는 표피보다는 정신성이 주가 된다. 내 작업 역시 일본 몬스터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글로벌리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근간에 깔려있는 우리 만의 정신성으로 차별을 두고 싶다. 한국은 공간적이고 다차원에 강하다, 즉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조주현: 설치 자체가 시각적인 면에서 압도적이고 무대 장치적인 특성이 강해 관객으로 하여금 가상공간에 초대 받은 느낌을 주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이한수: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내 작업은 개념적이 아니고 매우 시각적이다. 표현형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 보여지는 시각 전달 요소들에 대해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 그것이 하이브리드적 미래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형식이라고 생각했다.조주현:레이저문양의 어떤 특별한 선택기준이 있는지.이한수: 내 작업의 장비들은 low-tech의 레이저들을 사용한다. 문양은 컨셉트를 먼저 정해놓고 선택하는데 이번 '천 개의 눈을 가진 선녀상'은 날개 달린 선녀와 여자누드 문양을 선택해서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의 결합을 의도한 것이다. 판매되고 있는 레이저 문양들은 모두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키치적 기호이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를 고려한 문양으로 전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기호인 것이다. 그 중 원하는 문양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다.조주현: 동서양을 뛰어넘은 미래적인 혼성종교의 이미지를 주제로 작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현존하는 신흥 뉴에이지 종교 인을 등장시켜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사실상 판타지에 현실 감각을 가미했다. 연출된 상황이 아니고 종교 행위를 한 것이었는데 그 뉴에이지적 종교인들을 섭외 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이한수: 앞으로 변해 갈 혼성적 미래 문화의 단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그 뉴에이지 종교를 알기 전에 무아 몬스터1영상작업을 하면서 동서양 모든 종교의 각종 신들을 다 혼합 시키면서 에일리언을 신격화 시켰었는데 그 뉴에이지 종교와 우연히 딱 맞아 떨어져 신기했다. 종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 예술인들은 오픈 마인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정단체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관찰자로서 자격이 없지 않은가. 예술가로서 냉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작업을 하기위한 필수 조건이다. 조주현: 종교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즉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과 하이테크 간에 어떤 연관성을 느끼는지. 이한수: 선사시대의 사람이나 무속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 경외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신 초자연적인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가진 문명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는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다른 형식으로 다른 대상으로 계속 변화 발전되는 것이다. UFO를 가진 외계인은 하나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간주되며 문명이 높은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왜냐면 UFO가 외계에서 지구에 도달하려면 거리상 최소 초속 30만키로의 광속으로 운행해야 하고 우리가 쓰는 화석에너지로는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적인 생명체일수 밖에 없다는 가설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선사시대 때 경외의 대상인 해나 천둥 같은 자연물 또는 현상들이 현시대에선 과학적으로 밝혀져 신비감을 상실했고 이를 대신해 아직도 초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지의 외계인이 그 경외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조주현: 사실 지금까지 보아온 SF슈퍼 히어로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한 이미지들은 테크놀로지 발달의 폐해로서 등장하여 변이를 하지만 결국 그 이미지 캐릭터 자체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존재로 재현되어 왔다. 이한수 선생님이 보는 혼성 변이의 무아 몬스터 캐릭터 역시 같은 맥락인가?이한수: 일단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화나 SF영화 쪽과 순수미술과는 보여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젼은 소설이라고 보고 순수미술은 시라고 본다. 그러므로 SF적인 혼성문화를 표현하더라도 순수영역에선 시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그리고 내가 말하는 무아몬스터는 시각적 캐릭터라기 보다는 문화혼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신적 몬스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조주현: 그 말은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른 열린 텍스트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가?이한수: 그렇다.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 문화적으로 우리사회의 전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초만 보여줘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것이 유토피아적이건 디스토피아적이건 꼭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싶지 않다. 열린 시각으로 폭넓게 보고 싶다.조주현: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묻는다면.이한수: 혼성 문화에 대한 주제가 계속 큰 화두가 되겠지만 가능한 한 디지털 특성이 강화된 영상쪽으로 많은 작업을 할 계획이다. 설치는 물질적 재료의 한계 때문에 표현의 폭이 넓지 않은데 영상은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시켜 이펙트를 많이 가미할 수 도 있고 시대성과 맞는 다양하고 특이한 표현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조주현\_2004. 3.\_국립현대미술관 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니저

Interview by Ju Hyun CHOJu Hyun CHO: First of all, I’d like to point out because the show is the first of its kind after your returning from Germany, you may feel the difference between this one and your previous exhibits. What’s the difference and is there any point you try to show especially?Hansu LEE: This “Mu A Monster” Project is the second show I have in Korea. The first one took place in 2001 at the Insa Art Center under the title of “A Weather Forecast from Uranus”. The first one was rather comprehensive in that it embraced as a whole my concerns with futuristic culture, the aerospace industry, and the mixture of our identity with hybrid culture. On the contrary, this exhibition more concretely and profoundly addresses such issues. It further proceeds to dealing with such matters as the fusion of the aboriginal and the contemporar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ra of globalization, crossbreeding culture, and the like. Ju Hyun CHO: I know you are typically the generation of “386” (a specific term indicating one who was in 30s, did his/her college education in the 1980s, and was born in the 1960s). I think as the person who certainly belonged to the analog generation, your work underwent continual metamorphoses when you developed digital, high-tech creations. What’s the process your work went through?Hansu LEE: Actually it was hard times to live as a typical “386” It seems that I spent almost all days of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college demonstrating against the military regime. I rarely used the computer before joining the army in 1988. After leaving the army I bought a 286 PC which was then regarded as most state-of-the-art. Since then, I tried to utilize it for my work but it didn’t go well. I think it was in the early 90s that our cultures started changing rapidly. My work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my studies in Germany. I learnt almost all things during that time. My work at that time was so-called “Gray Realism” reflecting my concerns about the situations of Korea that was in the 1980s under political turmoil. Despite those matters I had I recklessly made a decision to go to Germany. While living there, I came to experience new cultures and thereby made my eyesight more broadly open. It was not until then that I established my own view of the arts and worried sincerely about the matters of true identity. I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professor John Armleder who was part of a line of minimalists. My work wa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his, but similar to his way extracting motives and bringing them to life. Ju Hyun CHO: Technology was quite often adopted as your main subject matter. It is because you have a fetish for it? Hansu LEE: It’s not always true. Since my childhood, I was much concerned with science technology and enjoyed making something. My dream in primary school days was to become an artist but it was a scientist in my middle and high school days. As my work is mainly conceptual, I don’t think technology is massively important. I believe the arts are in no way able to be created by the amusement of technology. I wish only technology would not be used for judging my art. It’s so ambiguous to conclude that my work is absolutely digital since I have employed digital and analog half-and-half. Ju Hyun CHO: And so, you have intentionally mad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radition and high technology in terms of both theme and subject matter?Hansu LEE: You’re right. Hybridity is the solution of my work. If you see my work, you come to know that I intentionally kept in mind I wasn’t being extremely one-sided. My work is made of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digital and analog technologies, and remains balanced in its contents, comprising equally conventional and modern elements. Ju Hyun CHO: What’s the background to your continual dealing with the imagery of futuristic hybrid culture since the late 1990s?Hansu LEE: Discussing and explaining my work in Germany, I worried seriously about, as one of Asians as well as Korean people I could compete with them for taking my own domains. I felt in the early stage of my overseas studies the Westerners would not understand my work and furthermore tried to evaluate it according to Formal Aesthetics of the West. Ju Hyun CHO: Your work as a whole seems to have a sci-fi and kitsch-like air and easily associates SF film, Manga(Japanese Comics) and even computer games. Did you particularly or directly employ such genres in your work? If then, what kinds of work you have utilized?Hansu LEE: I like sci-fi film very much. I also like Japanese comics and computer games, but I try to be indifferent to them due to their strong addictiveness. As I have much concerned with the characteristic and style of games, I have paid my close attention to it. I enjoy listening to techno like ‘Underworld” and meditation music. The two genres of music seem quite different but have much in common particularly in terms of addictiveness. The intensive and continuously repetitive beats of techno strongly attract me, and meditation music at a glimpse look quite different from this, but it is basically same in its addictiveness. What my most favorites are SF movies such as “Mars Attacks!” and “The Five Elements” Such movies are not only very interesting but also reflecting the real world indirectly. They look so witty and upgraded by a level. They reflect some aspects of society through imagination and fantasy. In this respect, they are similar to my work. Ju Hyun CHO: Is there any movie scenes you have adopted in your work?Hansu LEE: An alien in a glass helmet appears in “Mars Attacks!” I noticed it in my work “The 21st Century Bodhisattva”. And the scene of a beautiful blonde who sits with her legs crossed and in meditation was greatly impressive. It’s similar to the atmosphere of my work “Mu-A OM”. Ju Hyun CHO: The character “Mu A Monster” you created appears gender-neutral, and hard to judge whether it’s good or evil, beautiful or ugly. As a creator, if you define it?Hansu LEE: “Mu A Monster” is a symbolic icon. “Mu A” originated from an oriental notion “Mu A Ji Gyeong” (a state of selflessness) refers to “Selflessness” and “Monster” is the metaphor of modern technology.It distinctively links something deformed by the mixture of various cultures to one of the Asiatic identities of “Selflessness” To broadly speaking, everything which has a hybrid characteristic is able to become a sort of “Mu A Monster”. It isn’t merely a monster in its superficial appearance but conveys spirituality. It has “specialty” that distinctively represents an Oriental trait only we Asians have, and simultaneously contains “universality” that comprises a variety of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To mingle the two is the subject of my work. Ju Hyun CHO: I have known that so-called technologically rendered “monstrousness” was first represented in the Japanese character industry, as shown in “Pocket Monster” Your character “Mu A Monster” and laser kitsch images look quite cute, bright and light-hearted. What kinds of influences you have received from such Japanese characters?Hansu LEE: I think they were so influential in many respects. Actually, children all over the globe enjoy Japanese animations and grow up under its effects. I think of it as a phenomenon of reflecting globalizm. Even though Korea, Japan and China are all situated in Asia, they have their own distinctive cultures. While Japanese culture as a whole looks light-hearted and superficial, Korean one appears mainly spiritual.I would like to say that despite its similarities to the Japanese animation character, my work is basically the manifestation of our spirituality. I also point out that my work might be interpreted variously.Ju Hyun CHO: Your installation itself looks visually overwhelming and looks like a stage-set in its characteristic. So, it makes the viewers feel they are in virtual space. Is there any part you have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Hansu LEE: I studied in Germany though, my work is not conceptual but extremely visual. I always worried about how my work would be seen and what kinds of format should be employed.I thought the form I adopted was most appropriate to express the trait of futuristic hybrid culture.Ju Hyun CHO: You have any special criteria in selecting laser patterns?Hansu LEE: First of all, I set the concept of my work, and then decide which pattern I will use. The work “A Fairy with Thousand Eyes” has an intention to fuse the scared with the secular through the adoption of the patterns of winged fairy and female nude. All laser patterns on sale reflect kitsch flair of the general public. Ju Hyun CHO: The main subject appearing in your work was the images of futuristic hybrid religion. This time you had some persons of New Age religion do a performance, adding a fantastic quality to reality. It was an actual religious act rather than a performance. Hansu LEE: I think it showed an aspect of hybrid culture to appear in the future. Before I knew the New Age religion, I deified an alien in my work “Mu A Monster 1” blending a wide variety of gods in many relig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It was a great novelty that the work accidentally had an exactly same atmosphere with the New Age religion. I believe all artists should be open-minded, and as an observer we should be away from particular groups. It’s a prerequisite for artistic creations to see society from the observer’s point of view. Ju Hyun CHO: Do you think there is any connection between the supernatural and high technologies, in other words, religion and science?

Hansu LEE: In the pre-history era people were in awe of something supernatural, but nowadays of high-tech civilization. The object of awe has continuously changed and developed into other things. The extraterrestrials who have UFOs are deemed much more civilized than us, because to reach here they can travel at the speed of about three hundred thousand kilometers per second, which is by no means possible for us. The mysteries of natural phenomena such as lightning and thunder were long ago enunciated scientifically. They are no longer regarded as a mystery. The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entirely unknown to us today replaces them as the object of awe.Ju Hyun CHO: The characters so far appeared in SF films and super hero comics were often depicted as a vicious result of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But they were at last presented as the one who took a positive role for human beings. Is your Mu-A Monster character in the same context?Hansu LEE: I’d like to state that SF film and cartoons are not essentially same with pure art. Even if my work explored SF-like hybrid culture, it is intrinsically based on poetic expression like other pure art. Furthermore, the Mu A Monster is a character that tries to be more spiritual rather than visual.Ju Hyun CHO: Is that you emphasize your work, open to all,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each audience?Hansu LEE: That’s right. I think my work is able to assume a sufficient role only if it hinted at a clue of the cultural typicality of our society. It doesn’t matter whether that? utopian or dis-topian. I’d like to view all with my eyes open. Ju Hyun CHO: In closing, what’s the future orientation of your work?Hansu LEE: My main subjects will be a hybrid culture continuously. But I am planning to do more video works as actively as I can. Installations due to its limit of materials are hard to broaden the width of expression.I am much concerned with videos as it’s an art genre that ensures the artists to experiment with unique, diverse expressions with its non-corporeality. Interviewee: Hansu LEE, ArtistInterviewer: Ju Hyun CHO, Program Manager,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